

멧데, 불방망이에 ‘혼썰’



4.2이닝 7피안타 6실점

강백호에 홈런 2개 허용

KIA, KT에 3-6 패배

불펜 루키 장민기·이승재 호투

이의리 구위 점점 2이닝 무실점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다니엘 멧데이 KBO리그의 뜨거운 방망이를 경험했다.

KIA 멧데이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선발로 나와 4.2이닝 6실점을 기록했다.

강백호와 첫 대결에서 투런포를 얻어맞은 멧데이는 5회 세 번째 승부에서도 피홈런을 기록하는 등 험난한 하루를 보냈다.

멧데이는 1회초 조용호의 중전안타로 경기를 시작했다.

황재균과 알몬테를 나란히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4번 강백호의 힘에 밀렸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던진 6구째 144km 직구가 우측 담장을 살짝 넘어가면서 홈런이 됐다. 유한준을 우익수 직선타로 처리한 멧데이는 2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하지만 3회 멧데이 1사에서 조용호와 황재균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했다. 알몬테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멧데이는 다시 강백호와 마주했다. 이번에는 초구에 2루 땅볼을 만들면서 멧데이가 웃었다.

중전안타로 시작한 4회, 멧데이 세 타자를 범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에서 KIA 선발 투수 멧데이 1회 투구에 앞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로 돌려세우고 5회 선두타자 심우준까지 2루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그러나 조용호의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멧데이 KT 타선에 못매를 맞았다. 1-2에서 황재균의 2루타에 이어 알몬테의 좌전안타가 이어지면서 1

-4가 됐다.

이어 1사 1루에서 강백호와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졌다. 볼 두 개를 연달아 기록한 멧데이가 3구에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4구째 던진 슬라이더가 물리면서 강백

호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첫 홈런과 같은 코스로 이번에는 더 멀리 공이 날아가면서 점수는 1-6까지 벌어졌다.

잠시 숨을 고른 멧데이는 유한준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85구에서 개막 전 마지막 등

판을 마무리했다.

멧데이의 기록은 4.2이닝 7피안타(2피홈런) 2볼넷 1탈삼진 6실점. 이날 직구(38개) 최고 구속은 146km, 평균은 144km를 기록했다. 또 커브(3개·115km), 슬라이더(19·131km), 투심(7개·143km), 커터(16개·139km)를 구사했다.

선발 멧데이의 피칭은 아쉬웠지만 ‘루키’들이 패투를 이어가면서 팬들을 웃게 했다.

멧데이에 이어 5회 2사에서 나온 장민기는 유격수 박찬호의 호수비 덕분에 유격수 플라이로 첫 이닝을 정리했다. 6회 선두타자 박승욱에게 볼넷은 내줬지만 배정대-심우준-문상철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7회에는 이승재가 황재균과 알몬테의 방망이를 연달아 헛뜰게 한 뒤 신본기의 우익수 플라이로 깔끔하게 이닝을 지켰다.

그리고 8회 ‘2선발’을 쥔해놓은 이의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선발 등판이 미세먼지로 취소되면서 하루 전 이의리는 2이닝을 소화하며 경기감을 조율했다.

8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은 이의리는 9회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줬다.

선두타자 송민섭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이의리가 권동진을 삼진으로 잡았다. 이어 폭투와 도루로 1사 3루에 몰렸지만, 대타 김건형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윤준혁에게 볼넷은 내줬지만 알몬테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실점 없이 등판을 끝냈다.

34구를 기록한 이의리는 직구 29개를 던졌다. 직구 최고 스피드는 150km, 자신의 최고 스피드다.

경기는 3-6 패배로 끝났다.

한편 KBO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비와 미세먼지로 3경기를 치르지 못한 KIA는 3승 4패로 2021시즌 시범경기를 종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포수 ‘한방 마님’ 들 나가신다

KIA, 3일 두산과 개막전

김민식·한승택·이정훈·백용환

맷 감독 “타격감 좋아 옵션 다양”

KIA 타이거즈가 ‘4포수’로 초반 화력 점화에 나선다.

KIA는 오는 3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개막전을 갖고 2021시즌을 시작한다. 당일 출격할 투수를 제외한 남은 선발 투수들을 빼고 개막 엔트리를 구성하게 될 초반, 윌리엄스 감독은 ‘4포수’를 예고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30일 KT전에 앞서 가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개막전에는 더 많은 야수를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4명의 포수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첫 번째 경기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선수를 최대한 데려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식·한승택이 선발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 윌리엄스 감독은 이정훈과 백용환으



KIA 타이거즈의 포수 이정훈(왼쪽부터), 김민식, 한승택, 백용환.

〈KIA 타이거즈 제공〉

로 초반 공격에 무게를 더하겠다는 계산이다.

수비까지 고려하면 중요한 공격 순간에 빠르게 교체 카드를 사용,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정훈은 정말 좋은 캠프를 보냈다. 오늘 당장 시즌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이정훈이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첫 번째 원소 타자다”며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용환은 힘을 가지고 있고, 오른손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타자 옵션이다”고 언급했다.

좌우타석에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두 포수를 더해 초반 기세움을 벌이게 되는 KIA는 내부 경쟁이라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개막 시리즈 이후에 포수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4포수로 초반에 들어가지만, 선발들을 다 등록시킬 시점에는 4명이 가기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다.

‘진짜 무대’에서 4명의 포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트리 경쟁의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될지 ‘한방’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 멀어지는 MLB 꿈

텍사스 마지막 시범경기 3.2이닝 2실점...연속 볼넷 등 최악 부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엔트리 승선을 노리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양현종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 0-2로 뒤지던 6회에 팀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제구 난조에 시달리며 0.2이닝 1피안타 3볼넷 2실점(2자책점)으로 부진했다. 총 투구 수는 27개였고 최고 구속은 146km였다.

실점을 기록하는 과정이 좋지 않았다.

양현종은 도망 다니는 투구를 하다가 베이스에 주자가 쏠렸다. 더 도망갈 곳이 없자 한가운데로 공을 던지다가 공략당하는 모습도 보였다.

첫 상대는 리그 최고의 야수로 꼽히는 크리스천 엘리치였다.

양현종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뿌렸지만, 이후 볼

4개를 연속으로 던지면서 출루를 허용했다. 그는 후속 타자 아비세일 가르시아를 중견수 뜬 공, 재키 브래들리를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다시 흔들렸다.

양현종은 로렌조 케인과 오마르 나르바에즈에게 연속 볼넷을 내줘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이때 벤치에서 마운드에 올라가 양현종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양현종은 후속 타자 올랜도 아르시아에게 우익선상 적시 2타점 적시 2루타를 얻어맞았다.

초구 볼을 던진 뒤 2구째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가운데로 몰렸다. 상황은 2사 2, 3루가 됐고, 양현종은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승계 주자가 홈을 밟지 않아 자책점은 늘어나지 않았다.

양현종의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3.86에서 5.40으로 크게 뛰었다. /연합뉴스



강판 당하는 양현종

아궤로 ‘10년 동행’ 맨시티와 이별

구단, 계약 만료 공지...384경기 257골·리그컵 5회 우승 기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역대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로 꼽히는 셰르히오 아궤로(33·아르헨티나)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10년 동행이 올해 여름 끝난다.

맨시티는 30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우리는 올해 여름 계약이 끝나는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아궤로와 작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디펜디엔테(아르헨티나)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아궤로는 2006-2007시즌부터 다섯 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뛰던 2011년 여름 맨시티에 입단했다.

이후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까지 10년을 뛰는 동안 공식전 384경기에 출전해 257골을 터트리며 프리미어리그 4회,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1회, 리그컵 5회 우승에 기여했다.

아궤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71경기에서 181

골을 넣어 역대 개인 통산 득점 순위에서 4위에 올라 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아궤로가 역대 최다 득점자다.

아궤로는 2011-2012시즌 킨즈파크 레인저스와 최종전에서는 후반 추가시간 결승 골을 터뜨려 맨시티에 44년 만의 리그 우승을 안기기도 했다.

2014-2015시즌에는 26골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궤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때면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난다”면서 “맨시티에서 10시즌을 뛴 수 있어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 시대, 이 나이에 프로 선수로는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소감을 드러냈다.

아궤로의 차기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스페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 명문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